

<서식6>

정책연구 평가 결과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

정책연구과제명	2015년 난임부부 지원 사업 평가 및 난임원인 분석	연구기관/책임연구원	한국보건사회연구원 / 황나미		
부서/과제담당관	출산정책과/우향제	담당공무원	임희주		
연구 방식	1. [√] 위탁형 용역	2. [] 공동연구형 용역	3. [] 자문형 용역		
연구자 선정방법	1. [] 일반경쟁계약	2. [√] 수의계약			
연구 기간	2016.5.19 ~ 2016.11.30. (6개월)				
연구 결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2015년 1년간 정부지원 체외수정시술 건수는 총 47,886건이며, 시술비 지원 실인원은 31,791명이며 시술비지원여성의 평균연령은 36.1세. ○ 원인불명의 난임이 53.7%로 비정상적으로 높음. ○ 총 시술 중 배아이식을 하지 못한 건이 총 3,923건으로 8.2% ○ 이식된 배아의 평균수는 2.18개. ○ 체외수정시술당 임상적 임신율은 31.5%, 배아이식당 임상적 임신율은 36.0%, 이식된 배아수에 따른 임신율의 차이는 없었음. ○ 25-29세 여성에서의 임신율이 39.0%인 것에 비해 45-46세 여성에서는 3.9%였음. ○ 신선배아이식을 하는 체외수정시술의 비용은 평균 3416천원으로 동결배아이식의 1054천원에 비해 약 3배 더 많은 비용발생. 				
평가 결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정책연구 목적과의 부합성 : 적절함 ○ 추진방법의 적절성 : 적절함 ○ 계약 내용에의 충실성 : 충실함 ○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 여부 : 없음 ○ 연구결과의 활용가능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: 향후 보다 많은 난임부부들에게 치료와 임신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및 건강보험적용 시의 기준설정 등에 활용가치가 높은 것으로 사료됨. : 시술지원신청용 진단서를 보다 성실히 작성해야함. 원인불명난임이 전체 시술건의 53.7%를 차지한다는 것은 매우 비정상적이며, 특히 특정 기관에서 집중적으로 87.1%, 75.1%로 보고되는 것은 우리나라 전체 체외수정시술 자료분석 결과를 왜곡할 가능성이 높음. 그렇지만 적절한 높은 원인불명난임 진단교정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. : 원인불명난임 진단비율이 높은 사유로 제시한 것들 중 다섯째 (기본검사를 통해 난임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을 경우 ~~ 의사들이 설명하고 설득하는데 어려움이 있음) 사유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. 필요한 검사의 시행과 검사 필요성과 그 결과에 대한 설명, 설득이 어렵다고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사항이므로 난임치료의사의 보다 높은 사명감과 책임감을 요구함. : 체외수정시술 이후 인공수정시술은 그 치료 순서가 적절치 않은 정상적인 치료과정으로 보기 어려움. 더욱이 난관요인이 8.3%로 나타났는데 난관요인은 인공수정시술의 적응증이 되지 않는 것으로 관련 자료는 활용가치 없는 것으로 사료됨. ○ 기타사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: 40-44세 여성에서의 원인불명난임은 58.3%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나 사실 이 연령대에서의 난임의 가장 중요하고 많은 원인은 난소기능저하 즉 난자의 고갈 및 난자질 저하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에 대해선 이견이 없는 실정임. 단지 배란이 된다고 해서 난소기능이 정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이 같은 경우는 진단 기준을 제시하여 난소인자로 원인을 분류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. 				
평가자 확 인	구 분	평가전문위원		과제담당관	
	성 명	김정훈		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과장 우향제	
평가 보고회	개최일자	2017.2.20.~22.		장 소	서면심의
	참석자				